

제19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인사 말씀

중국의 상업은행과 현대기업문화의 변화-

중국 근대시기(1911-1949)의 금융발전

■일시: 2013년 5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527 첨단강의실

■후원: 한국연구재단, 성균관대학교

■주최: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인사의 말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유럽발 경제 혼란과 동북아 경제권의 조정기가 도래 했으며, 그중 중국은 내수 진작, 시진핑 체제의 출범 등 크고 굵직한 중대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은 전통사회에서 현대로 이행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으며, 현재의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국경제의 이러한 부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방면적인 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역사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성장 배후에 가려진 전통과 현대의 상업문화와 기업문화에 일찍부터 주목해 왔으며, 2007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사업 선정이래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모델을 적용한 우리 연구소의 과제 수행은 국내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바 있고, 특히 그간의 국제적 교류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우리 연구소 주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은 그간의 전통을 계승하여 “중국 근대시기(1911-1949)의 금융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대시기(1911-1949)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역사적 가교로 현대 중국의 시장 기업 소비 등 경제를 둘러싼 제반 요소들이 태동하였습니다. 한편 근대시기의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주도하던 票號와 錢莊이 바로 이 근대시기의 초기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근대 금융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은행이 성립하게 된 중요한 역사시기입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움의 발표자는 먼저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일본의 奥村哲(오쿠무라 사토시) 동경도립대학 인문학부교수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중국근현대사 분야의 권위 있는 석학입니다. 다음으로 대만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신 林美莉(린메이리)연구원이 참석하여 옥고를 발표합니다. 한편 중국 복단대학 경제학원, 금융연구원의 張徐樂(장쉬러)교수도 민국시기의 금융정책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학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정혜중교수와 계명대 박주희교수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 일본 및 대만의 근대경제 및 금융 연구 전공자들이 함께 마주 앉아 우리 연구소의 연구주제를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사업의 1단계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11년부터는 2단계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가 우리 연구소 2단계 사업의 기폭제가 되고 국제적 교류사업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더욱 성숙한 연구 진행을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소장 김용준